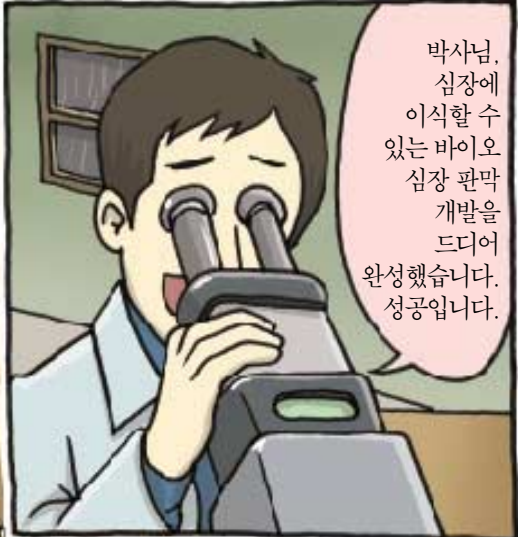


특정 퀴즈 ⑦ 생체재료연구센터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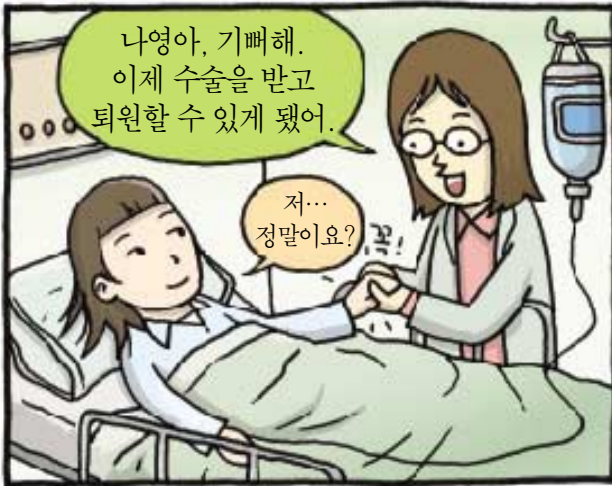
KIST의 비밀을 밝혀라



글 김경우 기자·그림 김준



지난 줄거리 : 나노재료연구센터를 찾은 스틸로는 나노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붉은별 군단 악당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다. 하지만 체력이 다한 스틸로는 그만 기절해 버리고 또 임무에 실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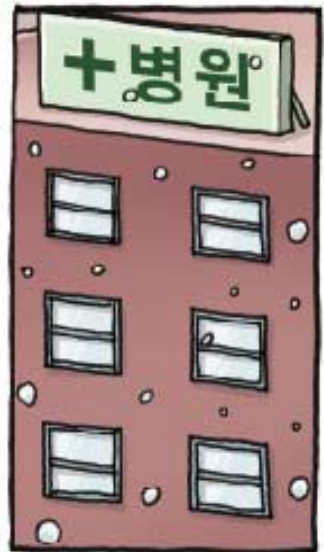
생체재료연구센터

병원에는 골수 이식이나 신장 이식 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수 없이 많아요. 하지만 필요한 장기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 장기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생체재료연구센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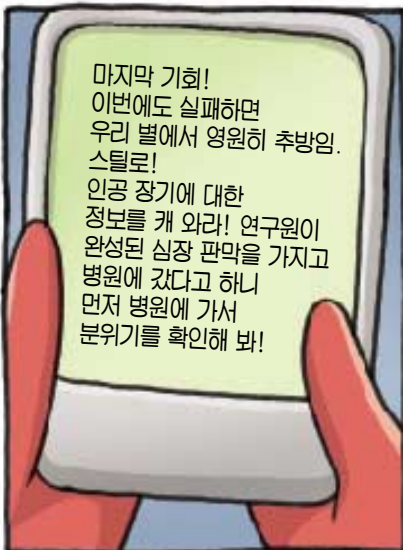
생체재료연구센터에서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 인공 장기입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인공 장기는 수술 후 몸속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의 몸에 있는 면역 체계는 평균 같은 이물질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을 하게 되는데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인공 장기조차도 적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거부 반응이 생기게 되지요.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장기가 바이오 인공 장기입니다.

바이오 인공 장기는 몸의 세포를 키워서 만들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획기적인 의료 방법입니다. 현재 몸에서 저절로 녹아 없어지는 실, 심장의 동맥 확장 후 사라지는 스프링, 인공 피부 등을 개발했지요. 현재 성장에 맞춰 자라는 인공 혈관을 중심으로 뼈, 연골, 안구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A-82 기지에 뭐가 있냐고? 스틸로와 똑같이 생긴 사이보그가 만들어지고 있지. 이제 심장 판막만 가져와서 사이보그에 생명을 주면 가짜 스틸로를 이용해서 더 못된 짓을 할 수 있단 말씀! 으하하하!





202호의
김나영 환자.
음...
여기로군.



후후!

엥~,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



후후후!
저는 이제
어떡해요?

나영아,
울지 마.
괜찮아.

심장 판막이
완성되었다는데
분위기가 왜 이리
우울한 거지?



후후!
어서 퇴원하고
싶어요.

우리 나영이,
이제
어쩔대요...

나영아, 그리고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세포를 얼른
키워서 또 만들면
된답니다.
걱정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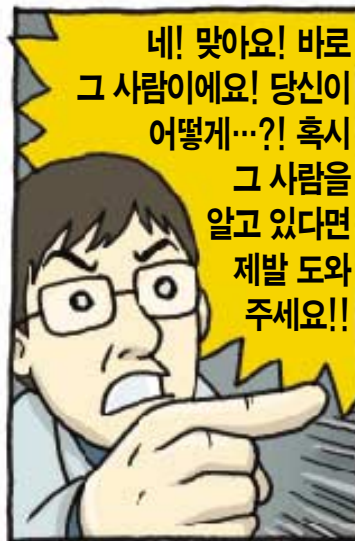
정말인가요?
그럼 그 도둑 맞은
심장 판막은 없어도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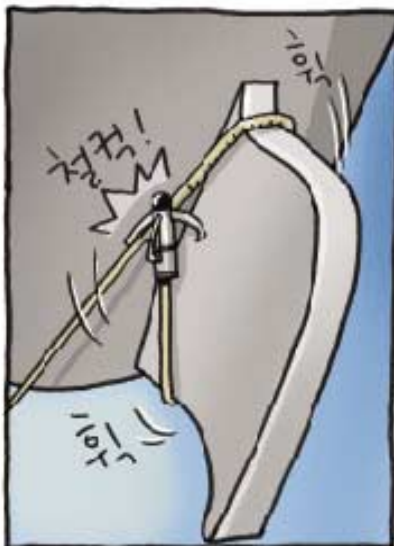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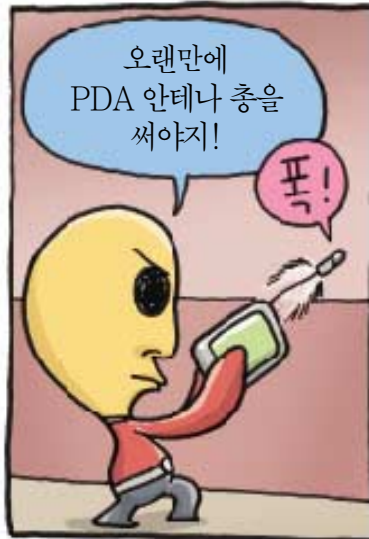
도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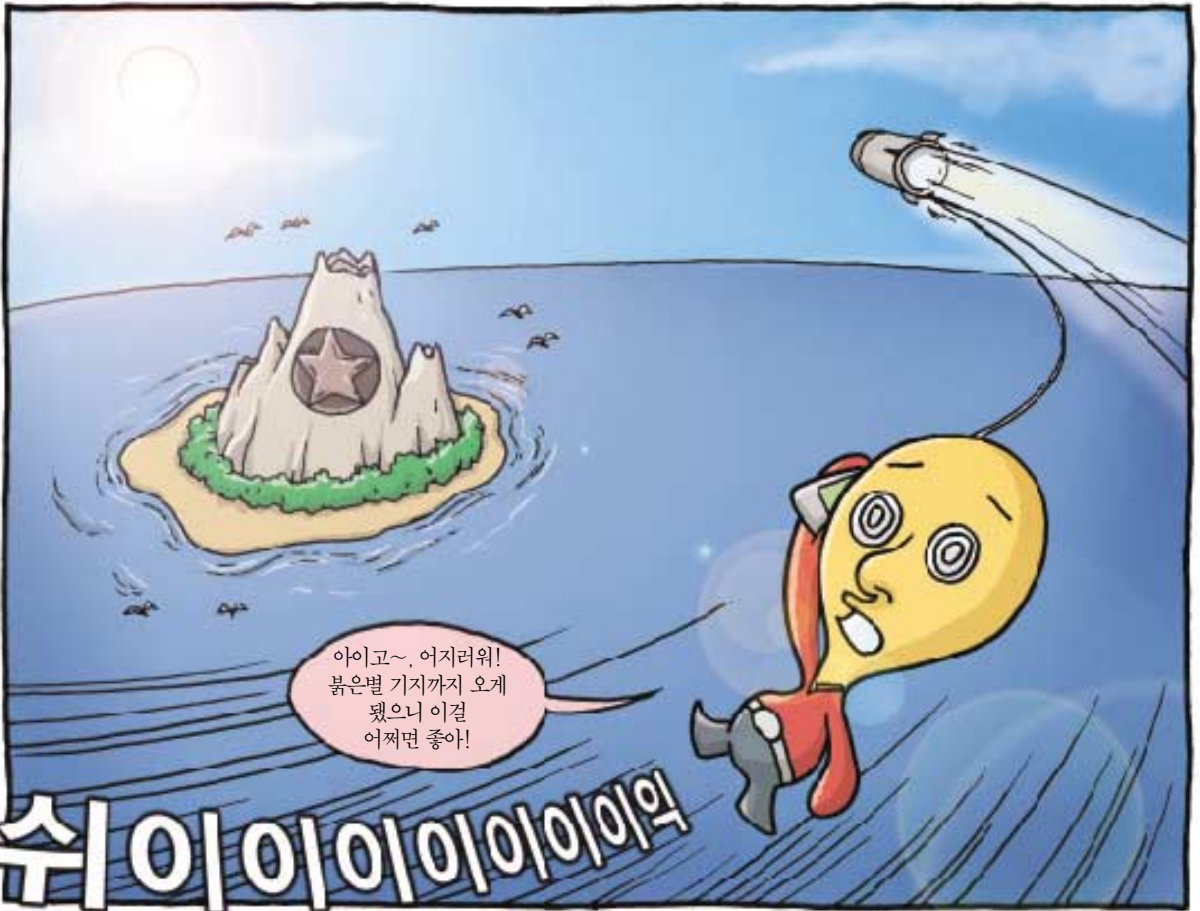
다른 세포를 키워서 만들 순
있지만... 지금 나영이에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후...
몇 달 동안 해왔던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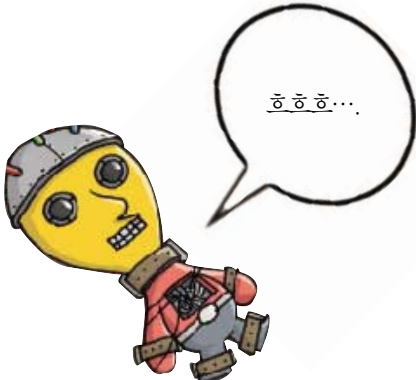


아이고~, 어지러워!
붉은별 기지까지 오게
됐으니 이걸
어쩌면 좋아!

슈이이이이이이이이



힉! 저... 저게
설마 나를
쏘려는 건
아니겠지?



ㅎㅎㅎ...



푸후,
기지에
도착했군.

붉은별 기지에선 과연 어떤 일이...?! ▶ **계속**